

創刊辭: 변화에 대응하는 학회

최영한 (한국수학교육학회장)

한국수학교육학회는 현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전신인 교련(대한교육연합회)의 산하 단체로 1962년 10월 9일에 창립하였다.

처음의 이름은 “한국수학교육회”였으며 지금의 이름인 “한국수학교육학회”는 1972년부터 사용하였다.

1963년 3월에 학회지인 《수학교육》(시리즈 A: ISSN 1225-1380)을 창간하였는데 이 학회 이름은 곧이어 《산수교육》을 창간할 것을 염두에 두고 지은 이름이었으나 《산수교육》의 창간은 35년의 긴 세월이 걸렸다.

3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교육 환경도 많이 변했다. 그 동안 “국민학교”의 교명도 “초등학교”로 바뀌었고 “교육대학”도 2년제에서 4년제로 바뀌었으며 이제는 교명도 “교육대학교”로 바뀌어 대학원(석사과정)까지 두게 되었다.

한편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던 “산수” 교과도 “수학”으로 바뀌었다. 교과명 뿐만 아니라 내용도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산수교육》을 《초등수학교육》으로 바뀌어 창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최근에 들어 우리 학회도 많이 바뀌었다. 우선 전용 사무실을 가졌고,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전임 직원도 여러 사람으로 늘어났다.

학회지만 하여도 많은 변화를 하였다. 우선 그 동안 《수학교육》의 특집호로 발행하던 학술행사의 프로시딩을 《수학교육 프로시딩》(시리즈 E)로 분리하였고, 1994년에는 순수 수학과 응용수학의 논문을 따로 모아 《순수 및 응용수학》(시리즈 B: ISSN 1226-0657)를 창간하였다.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킨 해는 올해이다. 수학교육 세계화에 발맞추어 영어로 된 수학교육의 연구 논문이 많아짐에 따라 학회지 시리즈

D 《수학교육연구》(Research in Mathematical Education: ISSN 1226-6191)를 창간하였다.

학회지 시리즈 B 《순수 및 응용수학》과 학회지 시리즈 D 《수학교육연구》는 학술진흥재단에서 정한 국제학술지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순수 영문 논문만 실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들 학술지에 실리는 논문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순수 및 응용수학》은 미국수학회(American Mathematical Society)에서 발간하는 MR(Mathematical Reviews)에 게재 논문의 평을 의뢰하였으며, 《수학교육연구》는 독일 Fachinformationszentrum Karlsruhe에서 발간하는 ZDM(Zentralblatt für Didaktik der Mathematik)에 평(Review)을 의뢰하였다. ZDM에서는 이미 평을 하여 주기로 하였다.

이로써 우리 학회는 국제 학술지 2종과 국내 학술지 2종 도합 4종을 발행하게 되었으며, 《뉴스레터》, 《수학교육 프로시딩》, 《수학교육연구 자료집》 등까지 합치면 연간 20여 차례로 모두 3,000쪽이 넘는 간행물을 발행하게 된다.

학회의 국제적 위상도 여러 면에서 계속 올라 가고 있다. 1980년에는 당시 학회장이신 박한식 교수께서 ICME-4(미국 버클리)에 참석하였고, 1984년에는 ICMI 한국 대표로 선출되었다. 그 후 ICMI 주관의 여러 국제 학술회의에서 국제 프로그램 위원회(IPC)의 위원을 맡거나 좌장을 맡으셨으며 끝내는 아시아 지역 여러 나라의 ICMI 대표들의 추천으로 내년(1998년)에 청주에서 열리게 되는 제1회 ICMI 동아시아 지역 수학교육 국제회의(약칭 ICMI-EARCOME 1)의 대회장(Chairman of IPC)이 되셨다. 이 행사는 ICMI 한국지부(KSICMI)와 우리 학회가 공동 주최하며 전학회장이신 구광

조 교수가 행사 조직 위원회(Local Organizing Committee)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학회 회원들의 국제학술회의 참석도 급격히 늘고 있다. 1992년 ICMI-7(캐나다 퀘벡)에는 박한식, 신현성(강원대) 회원과 필자가 참석하였고, 1993년 PME-17(일본 주구바)에는 류희찬, 박한식, 박성선, 전평국(이상 교원대), 신현성 회원과 필자가 국내에서 참석하였고, 일본에 유학중인 서혜숙(주구바 대학)회원이 주최측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

또 1994년의 ICMI-China 수학교육 지역회의에는 김영국(서원대), 김태성(충북대), 박규홍(서원대), 박한식, 신현성 회원과 필자가 참석하였다. 특히 박한식 교수는 TG 2(주제: 교사 교육 및 재교육에서의 수학 교육 과정)의 좌장을 맡아 활약하였다.

다시 1995년 ICMI-Australia 수학교육 지역회의(호주 멜보른)에는 강완(서울교육대), 김수환(청주교육대), 류희찬, 박한식 회원과 필자가 참석하였고, 박한식 교수는 IPC의 위원을 맡았다. 또 1996년 SEACOME-7(베트남)에는 강미광(동의대), 이병수(경성대) 회원과 필자가 참석하였다. 한편 스페인 세비아에서 개최된 ICMI-8을 위하여 한국 대표단을 우리 학회내에 구성하였고 이 때문에 한국 대표가 ICMI에 참가한 이래 제일 많은 인원인 13명이 참가하였다.

또 올해에 중국 상하이/취푸에서 개최된 동

아시아 수학교육 세미나에는 국제학술회의 참가 역사상 제일 많은 15명이 참가하여 5명의 회원이 각 분야에 걸쳐 기조 강연을 하였다. 필자는 제1분과(수학교육평가)와 토론 및 개인 연구 발표 분과의 좌장을 맡았었다.

수학교육 관련 국제 행사나 외국의 국내 학술행사에 참석하고 연구 발표를 한 경우는 이 밖에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필자가 직접 참석한 것만 적었다.

35년이라면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학회가 세월만큼 자라지 못한 것 같다. 이제 도약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지난번 총회에서 우리 학회가 하여야 할 많은 일들을 거론하였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학회의 법인화
- ② 학회지의 수준 향상과 다양화
- ③ 회원 배가 운동
- ④ 발전기금의 확보
- ⑤ 학회 사무국 강화 및 사무의 전산화
- ⑥ ICMI-EARCOME 1의 성공적 개최

이러한 단기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5년후 40주년 때는 지금보다 더욱 성숙한 학회가 되어 있으리라 믿는다. 그때 여러 가지 새로운 구상으로 더욱 구체적인 장기 목표를 수립 할 수 있을 것이다. 다함께 힘을 모아 튼튼한 학회의 기틀을 마련하여 보자.